

돼지열병이 만든 '이상한' 물가 “삼겹살 값 떨어지고 닭고기는 꿈틀”

삼겹살 전년 대비 5.6% 하락 vs 닭고기 한달새 3.4% 올라

수입량 증가·식습관 변화...닭고기 값 계속 상승엔 '의문'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지속되면서 장마구니 물가에 이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돼지열병 여파로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했던 삼겹살 가격은 내린 반면 닭고기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돼지열병에 대한 두려움으로 소비자들이 돼지고기 소비를 줄인 반면 대체재인 닭고기에 눈을 돌린 때문으로 풀이된다.

16일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이달 닭고기 소매가격은 지난 11일 기준 5230원(1kg)을 기록했다. 이는 한 달전 5059원보다 약 3.4% 오른 것이다.

올해 닭고기 소매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지난 1월 5740원에서 9월 5102원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이달부터 가격 반전이 일어났다. 업계에선 돼지 열병에 따른 위축된 삼겹살 소비가 닭고기로 이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산 냉장 삼겹살 평균 소매가(지난 11일 기준)는 100g당 1930원으로 나타났다. 1년 전 가격(2046원)과 비교하면 약 5.6% 떨어졌다. 돼지 농가들이 가격 하락을 우려해 출하 시기를 앞당기면서 공급량이 증가했다. 또 소비가 줄어든 것도 가격 하락 요인으로 꼽힌다.

대형마트에서는 돼지고기 대신 대체재를 찾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롯데마트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2일까지 돼지고기 판매량은 지난 8월 13일부터 23일까지와 비교하면 2.3% 줄었다. 반대로 생닭 판매량은 같은 기간 8.3% 늘었다. 소비자는 찹찹한 마음에 돼지고기를 멀리하는 모양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소와 닭 등 대체 육류로 눈을 돌리는 분위기가 있다”면서도 “각종 할인행사를 진행하고 있어 당장 돼지고기 판매량이 급격히 줄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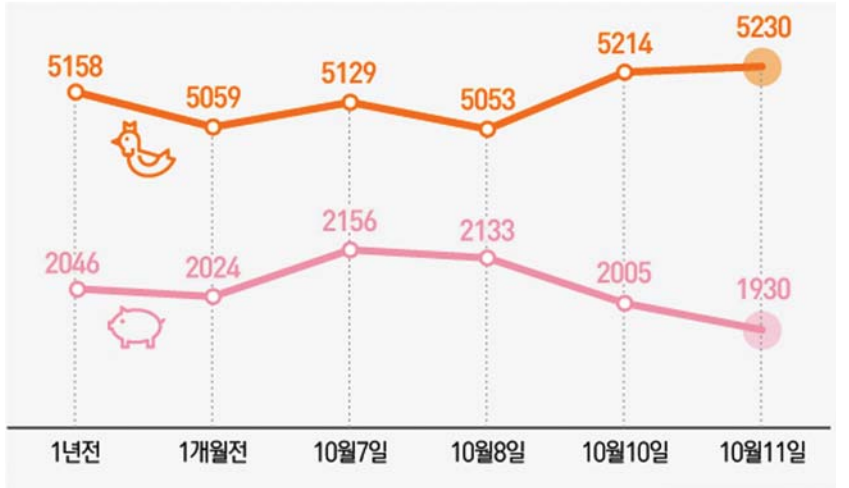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닭고기는 돼지고기의 대표적인 대체재로 꼽힌다. 과거 조류독감·구제역이 발생하면 돼지고기와 닭고기 소비량은 반비례했다. 실제 2010년 구제역이 발병했을 당시 소비자들은 돼지고기 대신 닭과 소를 눈길을 돌렸다.

국내 1인당 닭고기 소비량을 보면 2009년 9.6kg에서 2010년 10.7kg으로 늘었다.

일부에선 닭고기 소매가격이 단기간 반등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닭고기 수입량이 많이 증가하면서 국내 양계 시장이 여전히 압축하기 때문이다. 최근 1년간 닭고기 소매가격이 하락한 배경이다. 단백질 섭취로 육류를 고집하지 않는 식습관 변화도 이유로 꼽힌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브라질 등

닭·돼지소매가격추이 (단위: 원)



※ 닭: 1kg 기준 / 돼지고기: 삼겹살(국내냉장) 100g 기준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입 닭고기 유통량 증가로 생닭 가격이 주저앉고 있다”며 “이달 들어 소폭 반등을 돼지열병에 따른

영향으로 단정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뉴스1



사인머스켓으로 가을을 느껴보세요! 16일 오전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모델들이 '영천 사인머스켓'을 소개하고 있다. 롯데마트는 청포도 '사인머스켓'의 주요 국내 산지인 경상북도 영천시와 협약을 맺고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영천 사인머스켓(1.5kg/1박스)'을 2만 4800원에 판매한다.

‘역대 최저’ 기준금리...예금·대출 금리 더 떨어진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6일 기준금리를 지난 7월에 이어 추가 인하하면서 시중은행의 예금·대출금리도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기존 연 1.50%에서 1.25%로 0.25%포인트(p) 낮췄

다. 이번 기준금리 인하는 지난 7월(1.75%→1.50%) 이후 3개월 만에 지난 2016년6월~2017년11월 유지됐던 역대 최저치(1.25%)를 다시 찍었다.

이에 주요 시중은행은 예·적금 수신금리 인하 검토에 들어갔다. 인하는 이르면 다음 주부터 시작

되며, 인하 폭은 기준금리 인하 폭 수준으로 최대 25bp(1bp=0.01%p)로 예상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하 범위 안에서 수신금리를 조정하기 위해 검토 중이며, 이르면 다음 주중에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덕션 오명’ 아이폰11, 국내에서도 통할까?

국내 애플 마니아층이 ‘인덕션’ 등 슬한 디자인 호평을 받은 아이폰11시리즈에 대해서도 충성도를 발휘할까.

16일 애플코리아가 오는 25일 아이폰11시리즈를 국내에 출시한다고 밝히면서 판매량에 관심이 쏠린다.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이미 출시된 국가에서는 ‘디자인’ 호평을 뒤엎고 높은 판매량을 보여 준

다면 애플은 대만 폭스콘과 일본 부품 업체 등에 올해 생산하기로 한 아이폰11시리즈 물량을 700만~800만대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기존 예상치인 약 700만대에서 10% 늘어난 양이다.

미국 소비자 매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미국 소비자 및 시장 조사 매체 칸슈머리포트가 최근 실시한 스마트폰 신제품 테스트 결과 애플 아이폰11 프로 맥스가 1위,



과 같고, 아이폰11프로와 아이폰11프로 맥스는 전작 대비 3만~4만원 올랐다. 최고가 모델인 아이폰11프로 맥스 512GB의 경우 갤럭시 S10과 약 36만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여기에 5세대(5G) 이동통신이 상용화되면서 속속 5G 단말이 출시되는 국내 상황을 고려할 때 롱텀에볼루션(LTE) 모델의 아이폰11의 설 자리가 과거와 비교할 때 좁아진 게 사실이다.

업계 관계자는 “I.G전자의 V50S쌍류의 경우 119만원대에 듀얼 스크린을 포함하고 있고, 삼성전자의 5G 단말도 S10부터 노트10, A90까지 다양하게 포진돼 있다”며 “국내에서는 팔려도 저가 모델인 아이폰11 위주로 팔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5일 국내 출시...디자인 호평에도 해외선 판매량 급증

국내 5G 단말 많고 가격 합리적...“아이폰11 저가에 집중”

한 애플 마니아층의 존재감이 확인된 바 있다.

전작인 아이폰Xs 시리즈의 경우 혁신이 없는 데다 가격도 높게 책정되면서 전세계적으로 판매량이 줄어든 바 있는데 아이폰11의 가격 인하 정책으로 ‘반전’을 맞게 됐다.

애플은 아이폰11시리즈에서 사상 처음으로 가격을 인하하거나 동결했다. 그 결과 중국에서의 지난 9월 아이폰11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28% 늘어났다.

일본 닛케이의 최근 보도에 따

아이폰11 프로가 2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국내는 상황이 다르다는 분석이 많다. 가장 큰 이유는 가격 인하 정책이 국내에서는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애플코리아가 밝힌 국내 아이폰11시리즈 출고가는 △아이폰11 64기가바이트(GB) 99만원, 128GB

106만원, 256GB 120만원 △아이폰11프로 64GB 139만원, 256GB 160만원, 512GB 187만원 △아이폰11

프로 맥스 64GB 155만원, 256GB 176만원, 512GB 203만원이다. 아이폰11은 전작인 아이폰XR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광주에 투자하십시오

친환경 자동차·에너지·문화산업 육성

에어가전 및 공기산업 클러스터 구축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화 단지 조성

풍부한 우수인력 및 연구개발 적극 지원

GWANGJU